

## 믿음은 약속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창 21:1-7

기독교 신앙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란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응답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응답 받았다’라는 것도 알고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삶의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느 날 말씀을 통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그 약속의 말씀 때문에 믿음을 잃지 않고 계속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 약속의 말씀대로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이 때 우리는 “기도응답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 후에 응답이 있는 겁니다. 만약 약속의 말씀이 없이 응답된다면 사람들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아니라 “우연”이 일어난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약속의 말씀이 없다는 것은 응답이 없다는 말과 마찬가지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을 먼저 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런 중요한 믿음의 비밀들을 보여 줍니다.

본문 1 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여기에 보면 두 번 연속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바로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25년 전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에 자손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나이 백세가 되었을 때 비로소 이 말씀하신 대로 아들을 낳게 하셨습니다. 비록 25년이 지났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인가?’ ‘사라가 90 세가 되었는데...’ 라는 상황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사라의 나이와 환경에 관계없이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지금 어렵다고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시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마틴 루터가 독일에서 종교개혁을 성공한 것은 정치적 술책이나 군대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언젠가 마틴 루터는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한 일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설교하고, 번역하는 일이었다. 사실 나는 달리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했다. 정말 나는 아무 것도 하지 않았으나 오직 말씀이 모든 것을 해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큰 기적과 응답을 주시기 전에 반드시 약속의 말씀을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이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를 결국에는 웃게 하신다는 겁니다. 언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감사, 감격을 맛볼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때입니다. 본문 3 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아들을

샌안토니오연합감리교회  
이한나 목사

낳고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삭이라는 말은 ‘기쁨/웃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에 따라 태어난 이삭은 아브라함의 가정에 큰 기쁨을 가져왔습니다. 누가 제일 기뻐을까요? 아마 아브라함이겠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성취된 것을 보면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가슴에 안고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은 것은 일 년 전에 일어났던 한 사건 때문입니다. 창세기 18 장에 보면, 하나님의 천사들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미리 예고했습니다. 그때 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아서 장막 안에서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내 나이가 90 이 다 되었는데 설마 아들을 낳을 수 있을까? 하나님이 농담하시는 거겠지...’ 그러다가 사라는 하나님께 들켜서 야단을 맞았죠. 믿을 수 없어서 그냥 ‘피식’ 하고 웃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그때 그 약속 그대로 아들을 주신 것입니다. 이삭을 품에 안은 사라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6 절에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여기서 사라는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셨다고 고백합니다. 도저히 아기를 낳을 수 없는 나이에 아이를 갖게 하심으로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신 하나님, 그래서 사라는 그 하나님을 ‘나로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웃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웃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절망적인 우리 삶의 상황에 개입하셔서 웃지 않을 수 없는 기막힌 일들을 만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정말 웃음이 터져 나오는 기쁨을 맛보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으로,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어느 유머 책을 보니까 여러 웃음의 종류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요리사는 어떻게 웃을까요? ‘cook cook cook’이라고 웃는답니다. 축구선수의 웃음은 ‘kick kick kick’입니다. 살인자의 웃음은 ‘kill kill kill’, 남자 바람둥이는 ‘her her her’, 여자 바람둥이의 웃음은 ‘he he he’ 라고 합니다. 웃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는 자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본질이기도 합니다. 그런 예수님을 오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 분이 여러분에게 웃음과 위로를 줄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성경을 계속해서 보면, 이삭이 태어나서 모든 사람에게 웃음을 주게 되는 것과는 대조되는 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8 절 이하에 보면, 이삭이 자라 젖을 떼는 날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열었는데 이 때 하갈의 소생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고 그것을 사라가 보게 됩니다. 이스마엘은 이삭보다 열네 살 위였습니다. 이스마엘은 그동안 아버지 아브라함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태어나서 모든 집안의 식구들의 관심이 이삭에게로 쏠리게 되자 감정이 예민한 십대인 이스마엘에게 어찌면 반항심이 생기게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래서 희롱하고 폄박했겠지요. 이렇게 이스마엘이 어린 이삭을 희롱하고 폄박하는 일은 사실 어느 가정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평범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별로 대수롭지 않는 이 사건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은 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건을 갈 4:22-23 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기록된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샌안토니오연합감리교회  
이한나 목사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성경은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난 자요, 이삭은 약속의 말씀을 따라 난 자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한 것이 단순히 이복형이 동생을 희롱한 사건으로 본 것이 아닙니다. 이삭은 약속의 말씀을 따라 난 자입니다. 반면 이스마엘은 약속 없이 난 자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낳으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래가 자기 방법대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없이 자기 생각대로 낳은 아들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좀 더 깊은 영적인 문제를 다루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스마엘과 이삭의 갈등을 통해 우리 안에는 이 두 가지 모습이 존재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육체를 따라 난 자의 모습이 있고 약속의 말씀을 따라 난 자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 둘이 서로 싸우고 갈등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육체의 생각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는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내 생각대로 살 것인가?’ ‘성령을 따라 살 것인가? 아니면 육체를 따라 살 것인가?’ 우리가 다시 창세기 본문을 보면 그 뜻이 분명해집니다. 10 절에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그렇습니다. 이스마엘은 기업을 이을 자가 아닙니다. 육신을 따라 인간적인 방법대로 낳은 약속 없는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힘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고 따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육신의 생각, 육신적인 방법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리더들을 키우는 ‘제자반’이라고 하는 클래스에서 배우는 내용 중에 “예수님과 내가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물론 정답이야 예수님이 이기는 것이지요. 그런데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이긴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설득해서 기도하게 하려면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모릅니다. 번번이 우리가 이깁니다. 예수님이 우리로 성경을 읽게 할 수 있습니까? 잘 안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을 선교회 회장시키고, 부장도 시키고, 전도 좀 하게 하려고 하는데, 안합니다. 특히 다른 사람을 용서하라 고 주님이 그렇게 이야기해도 우리는 잘 안 듣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 고집을 꺾을 수 있습니까? 잘 안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강하기 때문입니다. 문제 있는 교회들 보면 누가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킵니까? 새로 온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오래 교회 출석하고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열심히 주를 위해 헌신은 하는데, 순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 헌신할 수 있지만, 헌신하는 사람이 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 안다는 것입니다. 다 해보았다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자기 생각, 자기 방법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시끄럽고 어렵게 되는 겁니다. 이렇듯이 우리들의 문제는 구원받고 때로는 성령의 부어주심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듯이, 우리 육신적인 생각이 성령의 생각을 가로막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게 막습니다. 이 둘 사이에 갈등 때문에 신앙생활이 괴롭고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분명합니다. 정말로 예수를 잘 믿고 싶다면, 정말로 하나님을 체험하고 싶다면,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쫓아냈듯이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생각을 끊어버려야

샌안토니오연합감리교회  
이한나 목사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쫓아내는 것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자기의 피붙이가 아닙니까? 14년 동안을 키웠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쫓아내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고야 맙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 육신의 생각을 떼어 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오늘 배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이삭을 낳은 삶입니까? 이스마엘을 낳은 삶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있다가 이삭을 낳고는 온 집안에 웃음이 있듯이, 웃음이 있는 믿음생활,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이스마엘을 낳고는 지금 갈등과 고민에 빠져 있습니까? 오늘부터 약속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응답의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